

19차시.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기

바로 통하는 질문수업

실전학습코칭

01. 4.19혁명의 배경과 의의 정리, 발표하기

가. 교사의 준비

수업할 단원명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이며 주제는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20분 동안 모둠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하고, 나머지 20분 동안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질문으로 아이들끼리 이야기 나누기를 합니다. 모둠 보고서 작성 및 발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전체 토론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는 세미나식 토론과 거의 동일한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 더 발전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짝 토론, 모둠 토론과 달리 전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아이들은 수업에 몰입하게 되고 수업을 즐기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교사라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반 학생들은 전체 토론을 통해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수업을 즐기거나 그 시간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사인 내가 수업을 즐기면서 자유함을 느꼈기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한 교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수업을 구상합니다. 주요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살펴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함을 학습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성취기준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배우고 끝낸다면 역사적 사건은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헌신해야 할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꼴이지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는 상황을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면 4.19 혁명에 참여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만큼은 역사적 사건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내 직업을 구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사회적 문제는 모르는 체 하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참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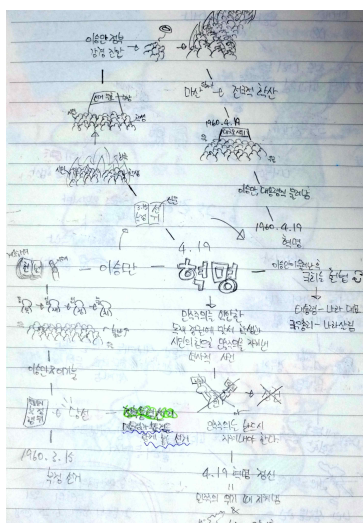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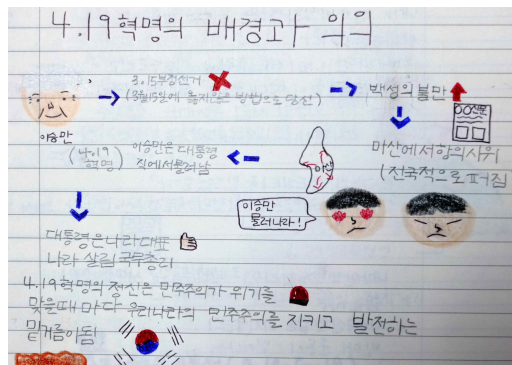
물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잠

시 미루고 사회 개혁을 원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헌신하면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자초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사회 개혁을 위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실 내에서 지식으로만 배우고,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 모둠 보고서 작성하기

각자 집에서 공부하면서 예습노트를 작성해 옵니다. 비주얼씽킹을 2주일 전에 처음 배웠는데, 예습노트를 점점 이렇게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차시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아침자습 시간에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더니, 이제는 제법 잘하는 학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비주얼씽킹의 장점은 한 눈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예습노트 작성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토론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나, 종종 다른 수업 방법을 적절히 가미하며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제로 해 온 예습노트와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모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한국사 역사책, 검색자료 등도 함께 참고하겠지요.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비주얼씽킹 예습노트를 보면서 활동하므로 모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수월하고 시간이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 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박정희는 군인 이었고 정권을 제일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방법이 군사로, 군사정변(쿠데타)을 일으키는 것이었음 것이다. 이윽려
- ★ 내가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였다면 (휴식) 반대 운동에 어떤 대응을 했을
 - 내가 박정희 대통령 이였다면 전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서 감금전압 하자 더 큰 서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고 절대로 감금전압 (무타 권으로 무력을 행사하며 전압)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사과를 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어서 그들의 분노를 조금 가라 앉게 할 것 같다.
- ★ 장기집권의 장단점은?
 - 장점은 없다. 박정희만 장기집권을 하는 사람들이 분앙을 띄게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단점은 그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정남패를 저지르는 것 (부정남패, 뇌물, 마음대로 개헌, 독재 등) 이고, 또 반재는 그것을 반대 하면서 시민들이 서위를 하면 무력으로 진압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 ★ 내가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였다면 변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 나라면 국민이 투표를 해서 찬성하면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을 것 같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였고, 세미들을들 돈으로 놓여준을 근대화 시키는 등 업적도 꽤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찬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예습노트(비주얼씽킹 정리, 최고의 질문 조사)

모둠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기 때문에 무임 승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으며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능하면 비주얼씽킹의 요소를 가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둠이 늘고 있습니다. 비주얼씽킹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가미해서 작성하곤 합니다.

다. 모둠 보고서 발표하기

모둠별 보고서 작성이 끝났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발표하는 것을 탈피하여 실물화상기를 통해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둠은 보충할 것만 추가로 발표합니다. 집중된 상태에서 발표 모둠의 보고서를 경청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물론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후에 서로 토론할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한 학기 중반 시기까지는 전체 학생들 앞에서 보고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을 잘 했으며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 교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할 해야 할 것을 설명하거나 질문을 통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앞에서 발표할 때는 다른 모둠보다 우리 모둠이 먼저 발표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모둠은 손을 들고 그렇지 않은 모둠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웠던 협동학습의 여러 구조 중 몇 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 가고 셋 남기'구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발표자 한 사람은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여 보고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다른 모둠의 보고서 발표를 메모하면서 듣습니다. 보고서 발표가 끝나면 서로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며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또 다른 모둠으로 가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세 사람은 자기 모둠으로 돌아가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우리 모둠 발표자에게 설명하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전체 발표 때와는 다르게 역동적이고 더욱 관심 있게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활동수업을 하면 그 그룹 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수업 주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어떤 변화를 줘서 수업의 활력을 일으킬지는 교사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차시 학습 내용에 따라 교사는 수업의 흐름을 조정해야 합니다. 내용 파악에 더욱 비중을 두고 싶거나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배움을 얻고 싶은 차시가 있다면 보고서 발표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고, 내용이 어렵지 않고 토론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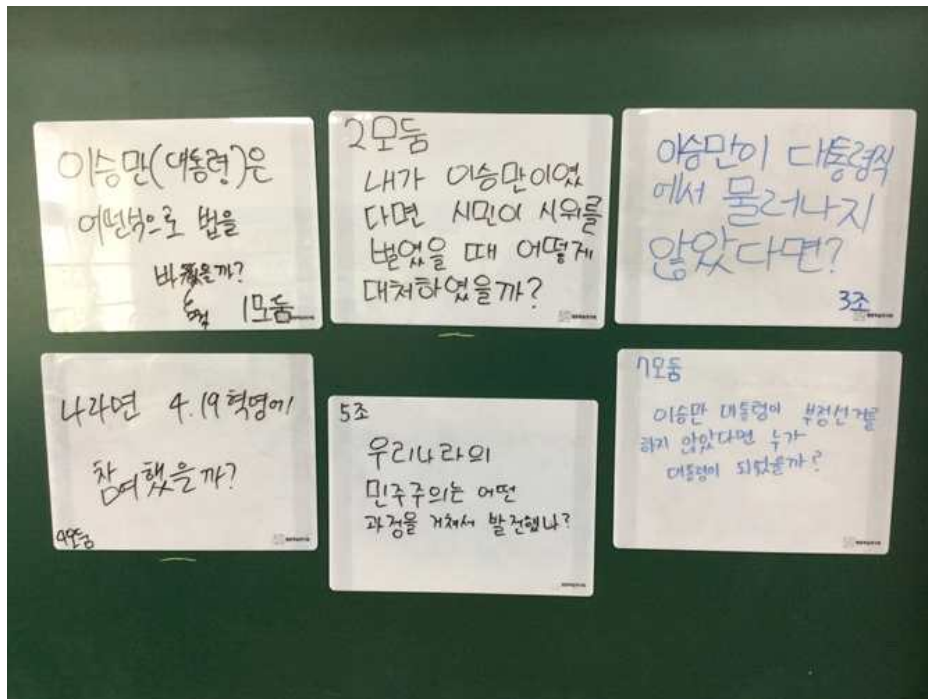
다음은 다른 차시에서 협동학습의 구조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협동학습 이외에

각 교사마다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02. 집중토론방법

최고의 질문으로 토론하기

한 차시 내에 보고서 발표, 토론까지 하려면 토론할 시간은 길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흐름을 조절하여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토론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아무리 잘 파악하더라도 역사의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없다면 역사와 내 삶은 동떨어진 관계에 있게 되겠죠. 배움 속에서 역사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교훈을 받고,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현재를 이끌어주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질문

학생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질문 5가지입니다.

1.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법을 바꾸었을까?
2. 내가 이승만이였다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일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3.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4. 나라면 4.19 혁명에 참여했을까?
5.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가?
6.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질문

<질문: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법을 바꾸었을까?>

처음에는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과 대화가 많습니다.

김**: 대통령 임기는 4년간 두 번이면 8년까지였는데, 이승만이 발che 개헌을 해서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도록 했어요.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사: 잘 설명해 주었네요. 세 번까지 맞나요? 누가 다시 한 번 찾아볼까요? 네, 7모둠 두 명이 좀 찾아줘요.

이**: 발che 개헌이 아니라 사사오입 개헌이 아닌가요?

정**: 발che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함으로써 이승만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이 말한대로 그 당시 대통령 임기는 4년간 2번이므로 8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방금 말한 사사오입은 무엇인가요?

김**: 개헌을 위해 불법적으로 반올림했다는 내용인데.....

문**: 자기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꾼 것인데..... 혹시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인가요?

교사: 네, 맞습니다. 한국사 책을 읽은 덕분에 교과서 이외의 내용까지 알고 있네요.

문**: 읽긴 했는데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았는데, 사실이 맞군요.

교과서 이외의 내용이라서 어려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바꾼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된 학생이 많았습니다.

<질문: 내가 이승만이였다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일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내가 이승만이였다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일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나누기 이전에 짝 토론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짝의 의견과 이유를 들어보는 과정이 있다면 전체 토론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어렵거나 다양한 의견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도 짝 토론이나 모둠 토론을 먼저 거친 후 전체 토론을 하면 진행하기에 더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어려울 경우 선뜻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에

서 전체 토론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쉽게 참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특성에 따라 가끔씩 짝 토론, 모둠 토론을 섞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전** : 제가 잘못을 해서 시위가 벌어진다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 정** :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전** :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겠죠.
- 정** :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 이** : 이승만이 아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 : 전**의 의견은 일단 들통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들통이 나면 사죄하겠다는 의미인가요?
- 전** : 네.
- 교사 : (농담 삼아) 설마 평소에도 속이는 경우가 가끔 있나요?
- 전** : 아니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 교사 : 들통 나지 않으면 계속 속이면서 살아갈 것인가요? 손들어 보세요.
- 모두 : (절반 학생들이 손을 든다.)
- 교사 : 처음부터 사죄하겠다는 의견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 모두 : (절반 학생들이 손을 든다.)
- 교사 : 처음부터 사죄할 작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사죄할 예정이었던 이런 잘못된 계획을 세우지도 않잖아요. 안 그래요?
- 이** :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회한 후에 사과하고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사 : 여러분은 후회했던 경험을 한 후, 그런 행동을 잘 반복하지 않나요? 아니면 또 반복하는 경우가 많나요?
- 모두 : (대부분 반복한다고 표현한다.)
- 교사 :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후회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반복하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올바르게 살기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나라면 4.19 혁명에 참여했을까?>

위 질문도 먼저 짝 토론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참고한다면 내 입장을 정하기가 훨씬 수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짝 토론 후 논쟁이 되는 토론을 했습니다. 교사의 의도에 따라 찬반 의견이 팽팽하도록 진행할 수도 있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장감을 줄이면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논쟁은 긴장감보다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4.19 혁명에 참여하는 찬성편은 12명, 반대편은 17명입니다. 토론 내용을 보실까요?

- 손** : 그 당시 시위가 발생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차라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 : 지도층에서 부정이 많더라고 위험하니까 그냥 지나치겠다는 뜻인가요?
- 손** : 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 정** : 만약 모든 사람들이 손** 군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같은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독재 정치인이 계속 등장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결국 국민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손** : 일부 소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마산에서 큰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 나라면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 이** : 손** 군의 생각은 마산에서 시위가 발생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나 자신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사실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나라의 큰일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히 참여했다가 독재 정부에서 무기를 사용하여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 교사 :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 정** : 이** 군 의견처럼 참여하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한 행위를 거듭하면서 독재 정부를 이어갈 것 같은데, 한 번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나라 전체가 이익을 보는 것이 더 좋지요.
- 이** :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왜 군이 저까지 끼어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6.25 전쟁이 발생했을 시 농기구를 손에 잡고서라도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한데요. 저는 남이 하는 일에 별로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목숨을 버리기 싫어요.
- 정** : 이** 군처럼 만약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있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요?
- 이** : 그것은 가정일 뿐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단단히 각오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참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물론 사살당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 정** : 중간에 시위를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 손** : 일단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전국에도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중략)

토론 중 중간 현황 파악을 했더니 참여자 11명, 불참자 15명이었습니다. 참여자는 1명이 줄었는데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1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참자는 2명이 줄었습니다. 막상 토론을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 교사 : 그러면 불의를 보고도 왜 참여하지 않는지 의견을 말해 주세요.

- 정**: 4.19 혁명에 참여하여 목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 손**: 4.19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 더 큰 이유는 가족을 생각해야 하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여 월급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교사: 본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 정**: 정**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19 혁명 때는 강경 진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 교사: 129쪽을 보세요. 국립 4.19 민주 묘지가 보이지요?
- 정**: 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군요.
- 교사: 강경 진압 과정에서 많이 희생되었어요.
- 정**: 강경 진압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 김**: 마산 시위 때 강경 진압을 해서 곧 4.19 혁명이 일어 난거죠.
- 손**: 탱크와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 교사: 손** 군의 말대로 4.19 혁명 당시에 강경 진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안**: 결국 중요한 점은 시위에 사람들이 참여하여 4.19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 교사: 안** 양의 의견은 4.19 혁명 덕분에 이승만이 해야했기 때문에 나라면 참여하겠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 안**: 네, 맞습니다.
- 교사: 정리하자면 개인의 이익이 우선인지, 공익이 우선인지에 따라 의견이 갈리네요. 개인의 이익만 강조하는 사회에 산다면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나요? 반대로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공익에도 중요성을 두는 사회라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은 위 두 사회 중 어느 곳에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볼까요?

03. 4.19 혁명에 대한 소감문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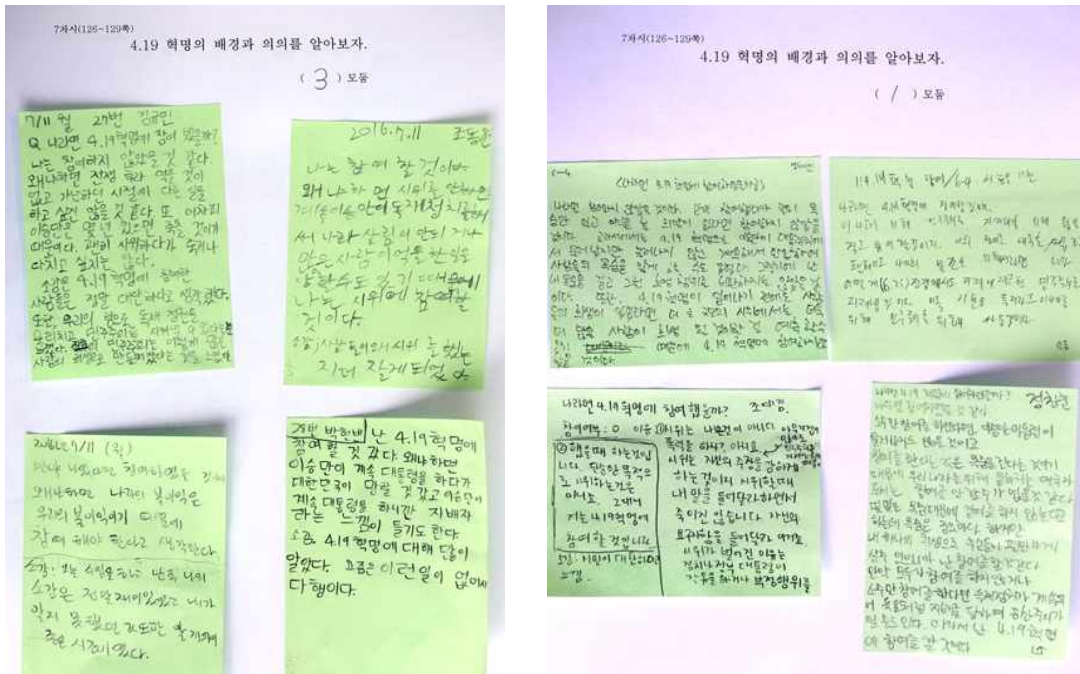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집중된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었고 매우 진지했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 20분을 더 투자하여 토론을 마무리하고 소감문까지 씁니다. 토론수업을 해 보면 수업 시간 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반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토론을 짧게 끝낼 수도 이 차시처럼 연장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참여하거나 몰입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충분히 토론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먼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모둠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4.19 혁명에 대한 의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 4.19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학생들과 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켜낸 큰 사건이고, 결국 이루어 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 4.19 혁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굳게 서는 밑거름이 되었다.
- 4.19 혁명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가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소감문을 써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토론했던 '4.19혁명 참여 여부'에 대한 소감문입니다.



▲ 소감문

위의 소감문을 정리해 보니, 4.19 혁명에 대한 참여여부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개인의 이익만을 더 강조하여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으나 중반을 지나 마지막 결과를 보니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점차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집중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가고 있음에 교사로서 느끼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정답을 쓰지만 토론할 때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고백을 표현하는 법이지요. 오늘 토론은 참 인생 경험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나의 참여로 인해 내 자식, 가족, 후손이 더 편해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 참여하겠다는 고백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성(4.19 혁명에 참석하겠다.)	반대(4.19 혁명에 참여하지 않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여할 것이다. 나의 참여로 내 자식, 가족, 후손이 편해진다면 이 한 목숨이 죽더라도 싸울 것이다. - 사회가 엉망인데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목숨이 걸렸다는 반대편 의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려면 부정행위를 막아야 한다. - 내가 이 정도의 용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놀랐다. - 요즘 일어난 사건이라면 최소한 죽이지는 않으므로 참석하겠다. - 혼자서 힘들어도 여러 명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이란 없다. 무관심하면 나라는 망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내 한 목숨이 아까워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참여해야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서 겁이 난다. - 참여할 것 같다고 해도 겁이 나서 피할 것 같다. -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 내 한 사람이 더 참여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
<p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말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 토론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니까 매우 재미있다. - 토론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이 자세히 이해되었다. - 참여하고 싶지만 무섭다. 대신 더 치밀한 작전을 세운 후 모인 사람들과 전국적으로 새로운 혁명을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니 매우 좋다. 	

▲ 소감문 요약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수업에만 목표를 두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역사를 보는 자신만의 관점이 생기길 바랍니다.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인생의 교훈을 얻고, 장차 어려움에 부딪힐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연결 짓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 전담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반 수업은 좀 부담스러워요.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반에 비해 나를 가장 잘 따르고 적극적이며 활기차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질문도 많고 말도 많고 에너지가 넘쳐 나요. 이 에너지를 제가 감당하기엔 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담임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게 되므

로 안심이 됩니다. 사실 우리 반 학생들은 수업 시작 시 질문 한 가지만 던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 답변하고, 보충하고, 질문하며 때론 논쟁도 합니다. 수업에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합니다. 교사의 정해진 계획에 따르는 수업은 조용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 및 학습 피라미드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학생이 말을 하고 시끄러울수록 오히려 학습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반은 재래시장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조용하면 담임에게 살짝 잔소리를 듣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지난 1학기 학기말고사 결과에 무척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수학 성적이 다른 반에 비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매우 쉽게 출제되었기에 평균보다 1-2점 더 높은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식, 이해뿐만 아니라 고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울수록 서술형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 반에게 유리하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험에는 고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